



가을숲의 산열매인 1.달팽나무 열매 2.산부추 3.정금 4.오름 5.매죽나무 6.색달천의 풍광을 감상하는 참가자들.

강희만기자

# 산열매가 익어가는 계절... 빛 고운 가을 숲길을 거닐다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① 1100도로~18림반~색달천~옛표고밭길~셋오름~죽은삼형제오름~한대오름~한라산둘레길~18림반

계곡·오름·임반 등 오가는 길 선선한 날씨 산행 즐거움 돋워  
오름·계곡 등 알록달록 풍경도



주말이면 비를 뿌리던 가을장마와 태풍이 지나가고 어느새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다. 햇살은 따뜻하고 그늘에 서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땀이 식어도 서늘하지 않고 시원했다. 계곡을 걷고 오름을 오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다. 지난 5일 에코투어에 참가한 탐방객들은 모처럼 걷기 좋은 주말 날씨에 몸도 마음도 가벼운 산행을 즐겼다.

올해 열한 번째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는 1100도로 옆 18림반을 시작으로 색달천~옛표고밭길~셋오름~죽은삼형제오름~한대오름~한라산둘레길을 거쳐 다시 18림반으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코스에 하천과 조릿대길이 포함된 만큼 참가자들이 출발 전 바지 밑단이 젖거나 발목에 생채기가 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색달천을 구경하며 걷다 보니 금세 옛표고밭길이다. 걸어온 만큼 익숙해진 풀내음 사이로 독특한 냄새가 탐방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냄새만으로 제피를 알아본 한 탐방객이 다른 지역에서 온 참가자들에게 "제주도에서는 물회를 먹을 때 꼭 넣는

계 제피"라며 먹는 법을 설명했다. 사방에 자란 조릿대를 헤치며 걷기를 40여 분. 삼형제오름 중 둘째인 셋오름의 남쪽1 정상에 도착했다. 정상에 낀 열은 안개에 다른 오름들이 희끗하게 보였다. 이날 길잡이로 나선 이권성 제주트레킹연구소장은 "1100도로 부근에 3개의 오름이 나란히 있어 삼형제오름이라 부른다"며 "이 오름은 부르는 사람마다 명칭이 다르지만 소위 '남쪽1'이라 불리며, 1100도로 바로 옆에 첫째인 큰삼형제오름(큰오름)이 있고 남쪽1 정상에서 내다보이는 오름이 셋째 오름인 죽은삼형제오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망월악으로 가는 길을 알리는 비석을 확인하고 방향을 돌려 죽은삼형제오름으로 향했다. 날이 습해지며 작은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가을비는 턱 밑에서도 굵다는 말처럼 금세 비가 멈췄다. 시원하게 빗방울을 털어내며 정상에 오르니 이번에는 반대로 셋오름 정상이 희미하게 보였다. 조금 더 길고 가팔랐던 길에 숨을 돌리며 휴식을 취하는 동안 참가자들이 오름을 올라오며 하나 둘 따온

오름을 맛봤다. 제주어로 '졸갱이'라 불리는 오름의 달짝지근한 맛에 다시 산행을 이어가는 일이 기쁘게 다가왔다.

오름을 내려와 다음 오름으로 가는 길. 창고천에 다다르자 점심을 먹기에 때맞은 시간이 왔다. 삼형제오름 가운데 두 번째 오름에서 발원해 안덕계곡 쪽으로 흘러간다는 창고천에는 지난 비 때문인지 적지 않은 물이 흐르고 고여 자리에 앉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마저도 산행의 묘미였다. 젓지 않은 평평한 바위를 찾아 삼삼오오 모인 탐방객들이 도시락을 먹는 동안 이 소장이 창고천 주위에 자란 열매들을 설명했다. "다래와 산다래는 식용이지만 개다래는 못먹는 대신 약재료로 쓰인다"며 "비슷하게 개머루도 식용은 아니고 약재료"라고 말을 잊자 몇몇 참가자들이 다른 열매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점심을 해결하고 한대오름으로 향했다. 노로오름과의 사이길을 통해 도착한 한대오름 분화구는 지난달 계속된 비로 보기 드물게 물이 가득 차 있었다.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라는 말에 사람 두 명이 간신히 지나갈 법

한 좁은 길에 순서대로 서서 넓게 펼쳐진 전경을 두 눈에 담았다.

분화구를 뒤로 하고 조금 더 걷자 정상에 금방이다. 중간중간 내리는 가을비를 맞으며 내려오는 발은 가볍기만 했다. 산행을 하기 좋은 날씨라던 이 소장의 말처럼 참가자들은 한라산 둘레길을 돌아 도착지까지 한 시간여를 걷는 동안 지친 기색 없이 이번 산행에 대한 소감과 제주의 오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에코투어에 처음으로 참가했다는 김현숙(61)씨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제주에 머물기 위해 내려왔다가 오름과 자연에 관심이 많아 기사를 보고 참여하게 됐다"며 "높게 자란 조릿대를 헤치며 남이 걷지 않았던 길을 걷다보니 숲도 더 청량하고 공기도 상쾌한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는 19일 열리는 제12차 에코투어는 제주아트랜드 입구-가문오름-목장길-진평천-농로-갑마장길-대륙산-갑마장길-행기머체 코스로 진행된다.

유재선기자 sun@ihalla.com

40년 전통 연구 개발 창업자

회장 강길만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만하면 **장기간 100% 방수**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지동시스템(조색기) 구비

**강력접착방수제**

특징: 통기성 (공기는 통해도 물은 들어가지 않는) 이 있어 들뜨지 않습니다.

용도: 모든 콘크리트 건축물 일절 (옥상, 외벽)

※ 소비자가 인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수제

**한번 칠하면 100% 방수되고 오래가는 칠만표 수용성 방수페인트**

특징: ○ 강한 접착력은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시간절약, 비용절약) ○ 단열효과로 집안이 쾌적하다

용도: ○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 (주택, 아파트, 빌라, 펜션, 호텔, 상가 등) ○ 타일면 ○ 벽돌면 ○ 스톤면

※ 세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드라이비트벽: 성지요양원      타일면: 이도아구점빌딩

**싱글 지붕용 탄성도막방수제**

노형 워터스틸라 12차, 미전빌라

자외선에 싹(부식)이 있는 싱글 지붕에 칠하면 100% 방수되고 단단한 새 지붕으로 바뀝니다.

**최고급 벽난로 판매**

○ 100% 스텐연통 설치  
○ 무동력 펠릿+화목겸용

조천면 대흥리 가정집 설치

○ 초기점화 30초내  
○ 종류: 장작용, 정원용, 캠핑용 벽난로

★ 주요생산품 : 녹/외색 접착방수제, 황토방수제, 균열보수제, 모체강화제, 수용성침투성방수제(발수제), 타일풀논방수제, 결로방수제, 고농축완결방수제, 급결지수제, 우레탄류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설 **KCC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 난로세상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모방품주의바랍니다.**